

한국 現代文學의 方向과 課題

—외국 문학과와의 관련 樣相—

朴 喆 熙

(西江大 國語國文學科)

.....
 근대 이후 한국 문학이 외국 문학의 영향을 각별하게 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글은 근대 이후 한국 문학에 끼친 외국 문학의 방법상 요인을 살피면서 동시에 그 順機能과 逆機能을 검토하여 한국 문학 연구의 方向과 課題를 가능하고자 한다.

I

문학의 흐름이란 전통의 계승이면서 아울러 외국 문학의 수용과 자기 발견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문학의 흐름 또한 그것은 예외는 아니다. 특히 근대 이후 한국 문학의 경우, 그 무엇보다도 외국 문학의 영향이 각별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비판적이든 끊임없이 자극 받고 또 수용된 문학을 우리다운 것으로 變容하면서 한국 문학의 폭이 그만큼 넓혀왔다는 것만은 확연하다. 따라서 이 글은 근대 이후 한국 문학에 끼친 외국 문학의 방법상 요인을 살피면서 동시에 그 順機能과 逆機能을 검토하여 한국 문학 연구의 方向과 과제를 가능하고자 한다.

뭐니뭐니해도 근자 한국 문학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西歐理論의 수용과 자기반성 그리고 우리다운 독자적인 방법론의 모색이라고 생각된다.

다. 그것은 서구 이론의 도식적 적용을 文學史的 발전의 척도로 삼던 종래 연구에 대한 자기 반성이자, 그동안 외면되었던 과거의 유산을 다시금 비추어, 한국 문학이 지닌 독자적인 文法을 드러내는 데 비쳐지는 노력이 되어 준다.

한국 문학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렇듯 서구 이론이 자극이 되어 종래의 단선적이고 일의적인 이해에서 다각적 이해로 바뀌고, 그 접근 방법 또한 多元化해진 현상은 오히려 한국 문학의 視野의 확대와 심화를 위하여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방법론적인 다원성을 향하여 자유롭게 열리는 일은 한국 문학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문학 이론의 세련만이 아니라, 한국 문학을 보는 새로운 시야의 발견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고도 유익한 일이다. 이미 이루어진 침에 하고도 다각적인 저쪽의 文學的 先驗을 창조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비전을 의미있게 새로이 넓혀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표면적으로나마 서구 이론에 의해 비

로소 한국 문학에 대한 우리의 시야가 확대되고 개념이 정리되며 또한 한국 문학 자체의 독특한 이론의 체계화가 시도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도되느냐 하는 것은 置之度外하고 우선 그 서술적 진술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만큼 최근에 이루어진 많은 연구나 비평이 그 대부분이 서구에서 나온 多角的인 이론과 방법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을 글 속의 인용문이나 풋노트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문과대학의 확장과 이에 따른 문학 연구의 활발한 진행, 그리고 문학론에 큰 비중을 둔 서구 문학 이론서의 번역 등이 그 배경이 되어 주었지만, 실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온 自覺過程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60년대부터 주체성이니 국적 있는 교육이니 하는 당대 표어가 시사하듯이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었던 민족적인 것의 각성이 이러한 경향을 더욱 제촉해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와서 그것이 성숙되어 나타났다는 것은 70년대를 통한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식적인 반작용과 자자 그리고 문화를 향한 자유로움의 결과라고 보아진다.

물론 이러한 모색과 시도가 무엇보다 局部的인 視點보다 體系인 遠近法과 관련된다고 할 때, 그 방편의 이론적인 내면화는 의외로 빈약하고 또한 현재로서는 우리의 상상력이 서구의 충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그것을 극복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학의 방법적인 다원성과 傳統에 대한 이러한 자자은 설사 그 방법론의 열면 논의만큼 실제적인 성과가 수행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자자 그 자체만으로 종래의 거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이고 또한 서구의존 연구에 대한 자기 반성이다. 선진적인 서구 문학을 수용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낙후성을 극복하겠다는 當爲와 근대문학 연구가 고전의 단점에서 출발했다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렇다.

II

그러나 이러한 자기 반성이 한결같이 긍정적

인 측면만 가꾸어 왔다고 말할 수 없다. 사실 서구 이론의 수용이 한국 문학을 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높이고 지적 수련을 갖게 하는 媒體로서 기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적 허영심 내지는 街學的인 취미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가공적이고 모조적인 연구를 조장할 위험성도 많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의 학계나 문단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징후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다. 內面化가 없이 서구 이론의 모형을 틀에 그대로 한국 문학을 재단하거나 이해하는 도방행위가 문학 연구의 신기성 내지 새로움으로 운운되거나, 모르게 도식화된 기호와 도식화의 처리가 비평의 전부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기호와 도표는 오히려 연구의 내용이나 문학작품 이해에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이 되는 逆機能의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 연구의 기본 대상인 문학작품에 대한 정밀한 독서행위 없이 서구 이론의 선행적이고 演繹的인 전제하에서 우리 사례의 몇 가지를 찾아 맞춤으로써 저염적인 성격이 본래 이상으로 과다하게, 또는 그 이하로 과소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편으로 자위를 해온 것은 이러한 사례가 근자 깨어있는 연구가에 의해 극복되면서 서구 이론을 비판적으로 헤아리고 한국 문학의 자기 정의를 위하여 그 나름대로 그 성취여부는 어쨌거나 내실을 다져왔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것은 서구의 이론을 한국 문학을 헤아리는 하나의 참조의 틀로 파악하는 일이다. 말하자면 서구의 이론은 거창한 이론이나 자기 주장을 위한 체계로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작품 자체를 정독하고 평가하는 일로 援用하는 것이다. 사실 서구 이론은 원칙적으로 普遍性을 지닌다고 하여도 그 보편성은 서구의 입장에서 그들의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추구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문학을 헤아리는 일은 세련된 서구 이론을 통하여 한국 문학을 직접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서구 이론을 있게 한 形成過程을 참조의 틀로 해서 한국 문학을 보고 읽는 일이다. 그렇지 않을 때 서구 이론과 한국 문학이 만남으로써 야기되는 자기 분열 내지 자기 부정

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20년대를 거치면서 60년대에 이른 서구 이론의 지나친 의존성이나 便宜主義的 원용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한국 문학작품의 구체적인 뒷받침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 역사적 사회적으로 必然的인 前提로서의 이론이 그 본래의 정신과는 무연한 채 그대로 추종될 때 그 설득력은 용렬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서구 이론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어디까지나 서구 문학이 아닌, 한국 문학에 관한 연구가 목적이란 사실을 분명히 하고, 받아들이는 이론의 가치는 한국 문학 연구를 위해서 실제로 기여하는 정도, 말하자면 한국 문학의 獨者性과 관련하여 有機的인 검토에 따라서 평가하는 일이다. 특히 原論的 전개에 머물지 않고 설득력 있는 실제비평을 위해서 내면화하는 일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正體性의 발견 내지 자기 인식의 과정이다.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한국 문학의 새로운 西部를 놀라움으로 보게 되고, 허술히 다루어진 관계를 새롭게 보는 계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경우 너무나 당연하다. 그만큼 한국 문학의 原象은 오히려 서구 이론의 경험을 거치면서 드러난다는 逆說을 구현한다. 서구 이론의 자극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이름없는 한국 문학에 이름을 부여하고 한국 문학을 명명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外來文化가 가져다 주는 충격을 창조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逆動性을 얻게 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문화의 리듬이다. 더구나 한국 고유의 문학이론이라고 할만한 것이 아직 정립되지 않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서구 이론의 영향이 각별하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한국 문학에는 서구와 동일한 낭만주의나 리얼리즘은 없다. 낭만주의나 리얼리즘 같은 용어는 서구의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즘' 이전에 그 '이즘'을 가능케 하는 문학활동은 분명히 있었다. 다만 정확한 이름이 없었을 뿐이다. 가령 레이몬드·윌리엄즈가 지적한 리얼리즘의 개념을 서구의 문맥과 관계없이 본다면 그것은 반드시 서구의 것만

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는 리얼리즘을 대상에 대한 理想化 또는 艷畫化에 대립되는 技法上의 의미와 영웅적·낭만적 내지는 전설적 소재와 반대되는 평범하고 당대적이고 일상적인 현실이란 內容上의 의미,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지적은 19세기 서구의 문학과 그 배경을 전제로 한 진단이다. 그러나 리얼리스트의 이러한 경험은 어떤 점에서 근대 이전에서 그 후로 이어지는 한국 문학의 기법 내지 내용상의 변화와 일단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20년대 작가인 廉想涉·玄鎭健·金東仁 등의 소설에 반영된 현실은 그들 앞 세대의 영웅적·낭만적 세계와 삶에 대한 理想化와 전적으로 대립되는 것이다. 20년대 대다수의 소설이 살인·강간·방화 등 불쾌하고 폭력적인 모티브와 충동적인 감정 등으로 結構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이 리얼리즘은 문학의 보편적 현상의 하나이며, 思潮上의 개념이기전에 現實限과 관련된다고 할 때 실제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역사 속에 리얼리즘적인 의식은 있어 왔다. 근대 이후 사실주의 작가의 경우, 그 작품 세계는 어떤 의미에서 18세기 이후 두드러진 平民文學에 비친 민중의 陰影인 것이다.

그러기에 근대 이후 사실주의 작가의 세계가 일방적으로 서구의 리얼리즘의 영향만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물론 서구의 경험이 근대 이후 사실주의적 요소를 형성시킨 외부적 자극이 된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그것은 자극일뿐, 이미 조선조 평민문학 등에 있어 온 사실주의적 의식이 근대 이후 사실주의적 요소를 낳게 한 내적 배경이 되는 것이다. 사실주의적 의식 또한 저쪽의 이즘을 알고난 뒤의 일임은 이 경우 물론이다. 그만큼 한국 문학의 자기 인식 과정이 서구 이론의 학습과 비평을 거치면서 자극되고 이루어졌음을 최근의 성과가 가리키고 있다.

Ⅲ

그동안 우리가 한국 문학의 가치와 實相을 파헤치지 못한 것은 관심의 결여가 아니라 새로운 이론과 방법의 미흡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런 점으로 보아 한국 문학 연구에서 이제까지 다루

지 않았던 形式理論이나 文學社會學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접근 방법 또한 다원화해진 현상은 그간 외면되었던 작품의 재평가를 위하여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다.

가령 최근의 학제나 문단에서 상당한 관심이 일고 있는 構造主義 이론의 경우, 이를 한국 문학에 적용하는 과정(참조의 틀)이 記號化 작업으로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분석의 간략화나 해석의 편의만이 아니라, 종래 우리가 보아온 문학에 대한 인상적이고 자의적인 시야를 개선하고 문학작품을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보는데 기여하리라고 보아지는 것이다.

몇 마디 요약적인 말로 문학작품의 인상을 개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품을 詩行을 따라서 분석하고 대립·모순·함축관계를 分割과 統合이라는 두 과정을 밟으면서 읽는 일과 같은 것은 서구 이론의 영향 없이 생각할 수가 없다. 레비·스트로스가 외디프스를 분석하면서 보여준 模型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좌에서 우로 읽으면 병렬적 구조가 나타나고 좌에서 우로 읽으면서 동시에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줄거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듯 한 작품을 有機的 統一體로 보고 그것이 부분과 부분을 이루고 있는 관계를 살피는 과정을 거치면서 작품의 의미는 확대되고 그 가치가 재발견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기호학적 분석은 텍스트를 하나의 단일한 의미 체계로 還元시키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의 의미가 만들어지며 왜 거기에 의미가 있는가를 밝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韃龍雲이나 金素月의 시도 새로운 의미를 띠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학작품을 自足的인 체계로 인정하면서 주제와 형태의 有機性을 더욱 단단하게 한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 연구에 있어서 기호학적 작품 해석은 좋은 참조의 틀이 되어준다. 한국 문학에 대한 視野의 편협성 때문에 문학작품에 내재한 진정한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神話批評과 구조주의 그리고 기호론 등 현대 형식이론은 그만치 근자에 다시금 높아져 가고 있는 문학의 사회학적 관심이 마주치게 마련인 문제의식의 既成品

化에 대한 하나의 示唆的인 도전이라고 할만하다.

더구나 한국 문학의 생성과 전개에 원천을 한국 문학 자체내의 맥락에서 파악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신화비평이 유포시키고 있는 原型論 등이 거둔 성과들이다. 그 중에서도 民間傳承의 原型性이 근대 이후 문학에 논란될 수 있는 일련의 문학적 확인 작업은 근대 이후의 문학이 고전문학의 전통 안에서 이해하는 데 밑을 만한 출발점이 되어 준다.

가령 徐廷柱·趙芝燕 등의 시의 구조 유형이 三國遺事의 敘事構造에서 함께 나타남을 확인한 것이 그것이다. 삼국유사가 근대 이후의 시와 詩史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시사하면서 결과적으로 徐廷柱·趙芝燕 등의 시가 한국 문학의 持續的 構造 위에서 이루어진 변화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일한 삼국유사의 서사구조가 그 모티프를 어떻게 달리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일인 이상, 이는 삼국유사의 소재 전통을 두고 형성되는 문학의 사적 연구라고 할만하다. 물론 形式論者들의 이론이나 기호 일변도로 문학작품의 전체성이 훼손 없이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형식론 또한 역사적 맥락에 대한 相補的인 고찰과 함께 아울러 때 비로소 고양된 이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 형식이론의 이론상의 한계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근자 한국 문학 연구가 고전문학과 관련하여 한국 문학 자체내의 맥락에 따라 그 전환기의 持續性과 變化를 다루는 방향으로 인식되고 강조된 것은 그 성취 여부는 어쨌거나 여러모로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비록 그것이 현재로는 소수의 움직임으로 그쳤고, 몇몇 사람의 산발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원칙만은 이제는 아무런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만큼 한국 문학의 근대적 형식이 근대 이전의 문학적 전통 안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모든 관심을 기울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형식론적인 작업에서 비로소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外向視線의 內向化인 것이다.

가령 한국 문학의 근대적 변화가 안(한국 시가 자체내)에서 이루어진 변화이고 외국 문학은 하

나의 자극(충격)으로 수용되었다는 인식, 종래의 이른바 서구적 지향에서 전통적인 것의 회귀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는 귀향을 통한 자기 발견 내지 민족적 자각이라고 할만 하다. 그러기에 이러한 자각은 脫鄉志向性的 거부와 그 청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하여 근대 이후 한국 문학의 前史的 배경으로서 19세기 후반 조선조 문학이 집중적인 연구대상이 된 것은 이런 뜻에서 지극히 당연하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 문학, 특히 근대 이후 문학을 보는 눈은 서구적인 경험에다 초점을 맞춘 수용적 이해가 고작이다. 한국 문학의 근대적 변화를 서구화와 동일시하고 근대적 변화의 요인을 밖에서 찾는 눈 등이 바로 外向視線의 구체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근대 이전의 문학과 그 이후 문학이 완전히 분리되어 그것을 동시적으로 바라보는 전체적 관점을 갖지 못한 채, 그동안 한국 문학의 이해는 국부적인 문제에만 골몰하는 데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물론 한국문학사에 있어서 근대적 변화물을 논할 때 서구 문학의 영향 없이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작가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문학이 반드시 그 영향 속에서만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일면적인 접근이요,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낀다. 왜냐하면 작가가 작품을 생산하는 데는 민족적 전통·개인적 出資·외국적 영향, 이 세 가지가 함께 아울러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표면적으로 서구의 것을 수용하고 등치체제에 순응하면서 시를 쓰고 소설을 썼지만, 그 내면에 또 밑바닥에는 이를 극복하고 전통을 계승한 작품이 있었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

그러기에 근대 이후 문학이 그 이전의 문학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근대 이후 문학을 서구 문학의 授受안에서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이러한 접근은 작품보다 작가, 작가보다 오히려 작품을 논하는 비평쪽에 있었다.

문제는 서구 문학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수용했는가를 究明함으로써 오히려 그 주체의 지향과 움직임에 작용한 自發性的 깊은 의의를 이해하는 일이다. 그러기에 근대 이전의 문학과

그 이후의 문학을 연속되는 큰 흐름으로 파악하고, 그 때 그 때의 부분적인 斷絶 내지 비약과 왜곡을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검토된 것은 그 성과가 기대한 것처럼 진척되지 않았으나, 종래 볼 수 없었던 視點의 革新이라고 생각한다. 근대 이전의 문학과 그 문학을 그 자체내에서 함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시야가 이렇듯 강조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民間傳承의 原型性이 근대 이후 문학의 모티프와 前像으로서 논의되고, 조선조의 평민소설과 근대 이후 소설이 동일한 차원에서 이야기되고 또한 조선조의 사설시조에서 근대시를 일관하는 自說的 요소가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전제를 앞세우면서 근대시가 사설시조의 연속선 위에서 파악하는 등 근대적 변화가 한국 문학 자체내의 전환임을 확인한 것은 무엇보다 평가되어야 할 새로운 착상이요 시자이라고 할만 하다. 그리고 그것은 素材史 내지는 모티프사 및 象徵論의 세련을 거치고 참조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서구시만이 아니라 한국시 또한 민간전승만큼 우리의 동의와 탄복을 요구하는 보편적인 정서나 서사도 없다. 민간전승의 정서와 敘事體驗은 한국 문학 전체를 일관하는 自己同一의인 것이다. 그만큼 민간전승은 우리의 정서와 서사를 융합할 수 있는 체험의 보편성이자 種族의 同一性이다. 그러한 동일성에 우리 자신을 동일화함으로써 자기 회복과 자기 전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通時的 同一性을 회복할 수 있다. 사실 한국 문학 그 중에서도 시의 경우, 특히 조선조말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모든 시가가 민간전승과 관련된다. 이 점 근대 이후의 시도 동일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른바 民衆時代·民衆詩의 의미도 그러한 맥락으로 정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하여 金素月·徐廷柱·金春洙·朴在森·申庚林·김지하 등 그들의 독특한 시적 체형에서 이러한 친숙하고 보편적인 민간전승이 시의 소재 내지 메타구조로 채용되고 형식으로 다루어진 것은 그 자체만으로 한국시의 매력과 장점이 되어 준다. 그것이 의도적인 탐구의 소산이었던 直觀的인 파악이었던 그것은 별 의미가 없

다. 문제는 그들의 시에서 說話·民謠·관소리·謳歌와 같은 민간전승의 경험의 투영을 그들이 통찰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들의 시 중에서도 민간전승 지향의 시가 다른 시보다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들 시에서 우리는 시인 개인의 정서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정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민간전승은 이렇듯 오늘날 시인에게 가장 매력있는 서정적 충동이면서 아울러 시인의 想像力의 샘 구실을 다하는 源泉의 상징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징은 고정적인 것,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원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인의 集團無意識 속에 유전되어 인간의 창조적인 상상력이 자유자재로 펼쳐지는 곳에선, 시대의 흐름 속에 변형된 모습으로 끊임없이 재형성되고 재반복된다. 아니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전승은 永遠回歸이고 돌아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민간전승이 우리의 과거이기에 오늘에 다시 살려야 한다거나 또한 그것에 비추어 자신을 헤아리는 것만으로 확고적으로 歸結되고 自足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를 헤아리는 일은 무엇보다 구체적인 눈에 있다. 구체적인 눈은 이미 있어 온 민간전승에 대한 저항이다. 저항이란 그러기에 단절하고 아울러 지속하는 행위며, 그 행위 속에 주제를 모양짓는 일이다. 주제에 의하여 민간전승의 경험은 更新되고 그때 비로소 민간전승은 근대적 세련을 거친 오늘의 생생한 정서 내지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동일한 素材傳統 속에 시인들이 서로 다른 존재론을 보여준 것은 이 때문이며, 이러한 개별성과 특수성이 강조된 것은 原型論 내지 形式論의 자극과 그 시사 때문이다.

IV

지금까지 서구 이론 그 중에서도 형식론 내지 원형론적인 방법의 수용과 그 한국적 양상, 즉 문학이 갖는 源泉의 素材로서의 민간전승에 한하여 하나의 사례로 언급하였지만, 그밖에도 여

러 가지 측면에서 서구 이론의 受容과 認識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한국시의 正體性을 드러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언어학적 해석과 고증, 문학이 갖는 사회사적 사실, 심지어 서지학적 지식까지 오늘날 한국 문학 연구의 비전은 서구의 이론을 통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서구 이론은 자신의 이론을 보충하려는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자신의 獨自의 이론 구성을 위한 批判的 출발점이 되어 준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문학 연구를 위해서 오늘날처럼 방법론의 수용과 인식이 표면적으로나마 활발하고 다양하게 논의되거나 전개된 적도 그다지 흔하지 않다. 그렇다고 이러한 성격의 글이 그 가치나 의미가 줄어들어 가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종래의 單線的인 연구방법을 혁신하는 데 결정적인 자극이 된 것만은 틀림이 없다. 물론 접근방법의 다양성이 한국 문학의 正體를 통일적으로 바라보는 데 방해되는 속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성이 없을 때 통일성이란 말은 의미가 없다. 한국 문학의 가치에 대한 해명과 평가가 이렇듯 서구 이론이 자극이 되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접근방법 또한 다원화해진 현상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한국 문학에 대한 사고의 理性的인 概觀을 이루게 하고 더욱 심오한 조명을 하게 하여, 끝내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방법론에의 정립으로 유도됨직도 한 것이다. 특히 이미 있어 온 우리 방법에서 문제의식을 파헤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필요한 이론을 스스로 선별·원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방법의 독자성에 우리 스스로를 구속할 필요는 없다. 문학작품의 개별성이나 시대성을 넘어서서 보편성 내지 지속성을 모색할 때 神話의 방법론, 작품의 구조와 형식을 헤아릴 때는 形式的 방법론, 문학과 사회의 상호관련을 탐색할 때는 社會學的 방법론, 문학을 통한 인간의 심리적 탐구와 해명을 시도할 때는 心理學的 방법 등을, 우리의 비견을 의미있게 넓혀주는 한에서, 우리는 그것을 참조의 틀로 활용하면 그만인 것이다.

문제는 한국 문학을 보는 눈이 전통적의 경험

보다 서구의 경험이 선행하면 그 때 자기 분열이 일어나고 同時代的 全體性은 파괴된다. 문학이론과 실제비평 사이의 어떤 거리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자기 분열을 경험한 평문을 일찍부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 왔다. 서구 이론의 수용이, 그 준거와 모형이 언제나 선별적이고 반성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서구적인 경험보다 전통적 경험이 선행하면 자기 분열이 극복되고 同時代的 全體性은 회복된다.

근자에 와서 이루어지는 전통적 경험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한국 문학의 獨者的 理論의 摸索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서구 이론을 받아들이는 필요한 자세는 어디까지나 한국 문학 연구가 목적이란 사실을 분명히 하고, 그 결과가 한국 문학 연구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 것이다. 그 가능성에 의해 한국 문학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는 마련되는 것이다. *